

# “100조 역전세 위험...집주인 대출 완화”

추경호 “전기료 등 인상 시기 최대한 분산”  
“빛 많으면 위기 단초...35조 추경 요구 맞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상승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일시에 오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종단에 출연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역전세 50% 규모, 1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집주인 자금 보

통이 안돼서 전세 대출 문제를 해결 못해 사회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이동 원활을 위한 조치로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출 금융 규제 완화하면서 사회 문제로 소화하려고 한다”며 “집주인이 대출하면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 전세 반환 보증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등 금융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 막바지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로 생긴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서를 확인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나 차액 보

전에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전기·가스요금,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면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을 흡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럼에도 상승요인이 있어 한꺼번에 반영하면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일시에 오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요금을 결정할 때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제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요금 따라가지 못하면 공기업 적자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분산해서 수년 간에 걸쳐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에너지 정책 가져가겠다”고 했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만간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물가 하향 추세 속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9~10월 (라면 가격)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비자단체가 가격을 조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광주TP,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초청 세미나 개최

광주테크노파크는 1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초청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정부정책·신산업 기술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출몰 현상과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5대 지방시대 핵심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5대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촉진,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능형기반의 지방혁신 등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한정판 ‘남고 홍매실’ 선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남고 홍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 15~29세 직장인 중 월급 500만원 이상, 6만3500명

10명 중 3.5명 IT·경영·전자공학 등 계열

월급이 500만원 이상인 청년은 어떤 일을 할까요? 10명 중 3.5명은 정보기술(IT), 경영, 전자공학 등 계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스1이 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10월)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직장인 394만8000명 가운데 월급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만3500명으로 1.7%를 차지했다.

이들의 종사 업종은 꽤 다양한데, 그 가운데 34.84%가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경영, 전자공학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흔히 개발자로 불리는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7705명

(12.1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인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다음으로 경영 관련 사무원이 7578명(11.9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이 6844명(10.78%)으로 나타났다.

업무 강도가 높은 간호사가 3538명(5.57%)으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 사무 종사자가 2145명(3.38%), 의료 진료 전문가가 1945명(3.06%)으로 집계됐다. 회계, 생명·자연과학, 건축 등 직업군이 그 뒤를 이었다. 회계 및 경리 사무원이 1741명(2.74%), 생

물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가 1668명(2.63%),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이 1637명(2.58%)이었다.

그다음으로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가 1426명(2.25%), 전기공이 1400명(2.2%), 인사 및 경영 전문가가 1289명(2.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1194명·1.88%), 금융 및 보험 전문가(1125명·1.7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1123명·1.77%) 순이었다.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117명·1.76%), 법률 전문가(1097명·1.73%),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1066명·1.68%), 약사 및 한약사(976명·1.54%) 등이 뒤를 이었다.

## 복권 조작 논란 막을까...복권위, 공개방송·블록체인 도입

내년부터 즉석복권에 도입...2006년 초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즉석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복권 조작 의혹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8월 스피드1000 등 즉석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판매·유통 및 당첨 정보 등 핵심 데이터가 암호화된다. 복권위와 복권수탁사업자도 당첨 복권 일련번호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다.

동행복권은 4기에 이어 5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31일까지 온라인·인

쇄·결합·전자복권 등 국내 모든 종류의 복권을 맡아 운영·관리하게 된다.

복권위는 우선 5기 복권 수탁 사업자가 복권 사업을 맡는 내년부터 즉석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후 2026년 초까지 로또와 연금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전자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전자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쳤다.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인쇄복권 비중은 8.8%, 결합복권은 4.6%, 전자복권은 1.9%다. 로또가 포함된 온라인복권은 84.7%다.

내년 즉석복권에 전자복권까지 더해지면 전체 복권의 11%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셈이다.

복권위는 조작논란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권위는 로또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개방송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 방송’ 참가 행사에는 150명의 참가인이 참여했다. 매주 방송에는 약 15명의 일반인이 참석하는데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6개월간 로또·연금방송 시청 경험이 없는 19세 일민이다. 1704명이 몰려 추첨으로 선정됐다. /뉴스1

## 영차영차 7만전자 증권자 ‘10만전자’ 전망

14개월 만에 ‘7만전자’ 고지에 오른 삼성전자가 상승 동력을 잃은 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증권가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을 전망하며 반도체주의 목표주가를 10만원 턱 밑까지 높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0.42% 상승한 7만1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3일 7만20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4일과 15일 이를 연속 하락해 7만1000원대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달 26일 7만300원에 마감하며 14개월 만에 ‘7만전자’에 안착했다. 이어 지난 달 30일 7만2300원까지 치솟으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동력이 약해지면서 7만원선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하지만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목표주가를 올리며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 감소와 수급 개선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9만원대 중반까지 오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기아, 전기 SUV ‘EV9’ 본격 출시

오늘부터 차량인도...99.8kWh 배터리 탑재



기아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기본 모델을 오는 19일 출시하고,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18일 밝혔다.

EV9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번째 모델로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다. 99.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1km까지 주행 가능하다.

기본 모델 트림은 에어와 어스 2가지로 각 트림에서 2WD와 4WD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에어 트림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과 핵심 편의 사양을 갖췄다.

어스 트림은 1열 릴렉스 콤포트 시트를 비롯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스티어링 휠 앰블럼 라이트, 듀얼 칼라 엠비언트 라이트, 12인치 대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기

본 탑재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에어 2WD 7337만원 ▲에어 4WD 7685만원 ▲어스 2WD 7816만원 ▲어스 4WD 8163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서울 지역 고객이 에어 트림 2WD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에 따라 69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V9 GT-line은 주요 정부 부처 인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는 EV9 구매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과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72개월 또는 84개월 전용 할부 프로그램 이용 시 선수율 30% 기준 각각 80만원, 70만원대의 월 납입금으로 EV9를 구매할 수 있고, 2년 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 광주철도공사 매장 임대료 20~50% 감면

39개 소상공인 혜택...“경기침체·고금리 등 고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역사 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를 업종에 따라 20~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분이다. 기 납부액은 소급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역사 내 임대상가 등 39개 소상공인 업체가 6000여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3년간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조익문 도시철도공사사장은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광주은행 132개 영업점 ‘무더위쉼터’ 운영

2018년부터 매년 시행...19일~8월 31일 영업시간 내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32개 전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시간 내(오전 9시~오후 4시)에 운영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야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2018년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 후 매년 운영해온 무더위쉼터를 올해도 운영해 노년층 및 폭염취약 계층 등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잠시

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객과 지역민의 호평을 얻으며 사량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이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개방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가 지역민과 고객님께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안-조준익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 자회사운영실태 ‘2년 연속 최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운영하는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YGPA는 2017년에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이하 YGPM)를 설립했으며, 여수광양항의 경비보안·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YGPA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는 YGPM의 지속발전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YGPA는 자회사 통합계약 체결, 낙찰률 미적용, 상생협력회의 운영,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실적 등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계약 관행의 개선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박성현 사장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광안-조준익 기자